진실에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무등산 국립공원 1년…대한민국을 품다 ▶2
몰라서 못쓰는 긴급복지제도 ▶6
화합의 강, 섬진강-사찰 벨트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689호 1판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음력 2월 4일)

#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새정치 혁신·비전 담아라

## 통합신당 합당작업 본격화…호남민심이 거는 기대

지방선거 3개월 앞으로

### 金·安 조만간 전국 순회

### 공천방식 새정치 가늠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전격적인 제3지대 신당 창당 선언에 호남지역 민심은 '새정치와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통합신당 창당이 지방선거를 넘어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고 민주 세력의 정권 창출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희망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합신당이 극복해야 할 정치적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장, '한 지붕 두 가족'의 현실에서 서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 국민적 지지를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세력이 공천 지분 등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통합신당 창당을 앞두고 조만간 전국 순회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견고한 결속과 야권의 단일대오를 상징하면서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신당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 밑으로는 양 측이 지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통합신당의 앞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신당이라는 그릇에 새정치와 혁신의 비전을 담는 것도 숙제다. 기존의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에 기반하는 내용으로 국민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정강 정책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신당이 과거의 야당과는 다르다'고 호남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와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는 것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측의 윤여준 의장은 3일 "새 정치가 한 단계 진전했다는 인식을 주려면 (통합신당의) 조직 형태, 운영방식이 혁명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인 새정치와 혁신의 실행 방안은 통합신당의 운영 방식과 지방선거 공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우선,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원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위주의 당 운영에서 탈피, 당원들이 당의 정책과 주요 현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 방식은 새정치와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당원의 참여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원이 거의 없는 새정치연합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공천 방식은 통합신당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지방선거 공천 기득권에 대한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면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어떠한 공천 방안을 마련, 통합신당의 새정치와 혁신의 실체를 제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대학 새내기 새출발** 동신대학교 신입생들이 3일 입학식에서 각자의 소원을 적은 종이 비행기와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소원 풍선을 날리고 있다. 동신대는 이날 오전 대학 체육관에서 학부 1837명, 대학원 석사과정 194명·박사과정 66명 등 총 209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학년도 입학식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의사협회 24~29일 전면 집단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휴진 이후, 준법진료를 거쳐 24~29일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3일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의협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투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집단 휴진에 대한 의사들 간 입장차가 큰데다 파업까지의 기간이 촉박해 2000년의 파업 때와 같은 참여율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무기한 파업을 원하는 회원이 대다수지만 일부 의료계 지도자들의 조직적 불참운동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전공의·대학교수의 참여 제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투쟁방안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하루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들어간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는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24일부터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쌀시장 전면 개방으로 가나

## 李농림수산장관 "6월까지 결정"

## 재연장해도 의무수입 배 늘려야

국내 쌀 시장 개방 여부가 오는 6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오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쌀 시장을 개방할지 말지를 알려야 해 늦어도 6월 안에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를 부과하면서 쌀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진통이 예상된다.

쌀 개방 문제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전남도는 향후 정부 방침 등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된 뒤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매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이후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대신 2014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미뤘다. 이에 따라 올해는 쌀 40만8700t, 즉 지난해 쌀 생산량 423만t의 9.7%를 의무 수입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쌀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산 쌀 가격은 한 가마니(80kg)에 17만4000원 선이다.

관세율 200%만 적용해도 수입 쌀의 국내 도입가격이 국산 쌀 가격을 넘어서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와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재연장 협상에 들어갈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최소 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의 22%에 이르는 양이다.

그러나 한-미·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 쌀이 국산 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밀려들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민회 등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나 의무수입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쌀 시장 개방을 막는 것만이 대안은 아닐 것"이라며 "지역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각종 지원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유)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오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학과, 고려대 법무대학원 지재법법학과, 연수원 15기
• 서울대 AIP, 원광대 최고정책관리자과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CEO아카데미
•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서울고검 검사(형사/행정소송)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 법무부 법무과장, 인권과장, 대전고검 검사(형사/행정/특허소송)
• 대검 첨단범죄과, 정주지검 부부장, 서울북부, 법무부, 서울동부, 부산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염 웅 철 올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워 17, 18층)
■ 대표전화 : 2046-1300 ■ 직통전화 : 2046-0642 ■ 팩스 : 3482-1177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 300 4 MATIC Avantgarde 출시
062)226-0001
Mercedes-Benz